

남원 단풍예찬, 풍문에 들었소 단풍명소 미리 보기



한로(10월 8일)가 지나면 사방에 가을 풍취가 가득하다. 올해는 집 중후우와 잦은 태풍이 도심 곳곳을 강타했지만, 시절은 어김없이 돌아오고, 계절은 소리소문없이 우리 곁으로 찾아온다. 스치는 바람결에 가을 색이 깊어만 가는 이때, 잠시 바쁜 일상을 접어두고 산하에 내려앉은 가을 색에 젖어보는 건 어떨까. 남원의 대표적 단풍명소를 소개한다.

단풍 맞을 채비,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

민족의 영산이 자리하고 있는 남원의 단풍은 어떤 빛깔일까? 울긋불긋 가을 손님이 올해도 어김없이 남원 지리산 노고단을 기점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지리산 뱀사골의 단풍 향연은 해마다 개최되는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로부터 비롯된다.

국내 최고의 단풍 명승지 '뱀사골' 단풍 트레킹

지리산 뱀사골 단풍이 주 능선인 노고단~천왕봉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점차 내려오고 있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리산 단풍은 10월 중순 노고단 상부에서 시작, 10월 26일 전

후로 절정을 이루고 11월 상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리산에는 피아골 등 단풍 명소가 즐비하다. 으뜸은 단연 뱀사골이다. 뱀사골은 우리나라 고갯길 중 가장 높은 1천130m에 위치, 14km 길이의 계곡 곳곳에 탁용소, 병소, 뱀소 등 빼어난 비경을 품고 있는 덕에 소(沼)와 어울려 지리산 최고의 단풍으로 평가받고 있다. 뱀사골 단풍은 보통 피아골 단풍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게 내려오고, 숲을 온통 불 지르는 듯한 강렬한 색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뱀사골 입구 반선에서 요룡대, 탁용소, 병풍소를 지나 간장소까지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붉은색 못지않은 노란색도 많아 전형적인 삼색 단풍 풍광의 백미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뱀사골 단풍 구경은 보통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탐방 안내소를 방문해 지리산 탐방코스, 주요 사찰, 주요 봉우리, 지리산의 옛 모습, 지리산에 사는 64마리의 반달가슴곰 등 지리산의 숨은 이야기를 듣고 단풍 구경에 임하면 더 좋다. 뱀사골 단풍이 주목받는 것은 코스가 완만하고 정비가 잘 돼 있어 가족 단위 탐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리산국립

공원 전북사무소에서 요룡대까지는 자연 탐방로여서 어린아이나 노인들도 쉽게 걸을 수 있다. 성인이라면 간장소까지 다녀오는 코스가 적당하다. 왕복 시간은 요룡대(2.2km)까지는 넉넉잡아 2시간, 간장소(6.5km)까지는 3~4시간이면 족하다. 뱀사골의 색다른 모습을 보고 싶다면 와운마을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좋다. 지리산 천년송까지 약 2.5km의 뱀사골 단풍길은 지리산 천혜의 비경과 뱀사골 단풍이 주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코스여서 매년 방문객들에게 최고 인기를 누리는 구간이다.

드라이브 코스로도 제격

단풍을 꼭 트레킹만으로 즐길 필요는 없다. 산행을 즐기지 않는 이들에게는 장대한 지리산의 비경과 단풍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를 추천한다. 드라이브 길은 크게 두 가지 코스로 좁혀진다. 뱀사골에서 861번 지

방도를 타고 도계 삼거리와 노고단 성삼재를 거쳐 구례 전은사에 이르는 25km의 코스와 지리산 국립공원 전북사무소가 있는 남원 육모정에서 60번 지방도를 타고 정령치를 지나 도계 삼거리와 뱀사골에 이르는 23km 구간이다.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지리산 산세와 단풍 절경은 마치 신선이라도 된 듯 마냥 흡족함을 준다.

소확행 누리기...남원의 단풍예찬

번뇌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다면 올해는 타오르는 불처럼 강렬한 빛깔을 자랑하는 지리산 뱀사골 단풍부터, 도심 속 단풍명소 만인의총, 교룡산성 아기단풍까지 남원의 다채로운 단풍명소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한가. 깊어가는 가을, 자연이 허락한 만큼 '오색빛깔 알록달록' 과감히 옷을 바꿔 입고 나타난 남원의 단풍으로 작은 행복을 누리보자. ♡

